

필립스, LG디스플레이 잔여지분 매각

매각대금 총 1조3100억원 달해 ... 조명 · 의료기기 집중위한 선택

필립스가 보유하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잔여 지분 13.2%, 4720만주를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, 필립스는 UBS와 모건스탠리를 통해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주당 2만5500-2만6000원에 매각하고 있다.

LG디스플레이의 3월11일 종가 2만7700원보다 6.1-7.9% 할인된 가격으로, 총 매각대금은 1조31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.

필립스는 1999년 LG전자와 LCD 합작법인을 설립했으나 조명, 의료기기 등의 주력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 2007년부터 LG디스플레이의 지분매각 작업을 벌여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312>